

大谷 成運의 著述과 逸文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Works and Lost Sentences by Seong Un, Dae Gok

朴 文 烈 (Park, Moon-Year)**

◁ 목 차 ▷

1. 緒 言	3.2 大谷의 逸文
2. 大谷의 學問과 思想	4. 大谷 著述의 後響
3. 大谷의 著述과 逸文	5. 結 論
3.1 『大谷先生集』의 編纂과 刊行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大谷 成運의 學問과 思想을 비롯하여 그의 著述과 逸文 및 後響에 관하여 고찰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大谷은 士禍가 빈번한 조선 중기의 암흑시대에 일생의 대부분을 報恩의 鍾谷과 속리산 자락에 은거하며 湖西處士로서의 입지를 견지한 인물로 正道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出仕하여 顯達을 구하기보다는 山林의 處士로서 自娛·自足한 인물이다.

(2) 『大谷先生集』은 선조 29년(1596) 무렵에 後嗣子인 一丘堂 金可幾에 의하여 편집되어 선조 36년(1603)에 그의 後嗣孫인 澗西齋 金德民이 西坳 柳根의 도움을 얻어 목판으로 刊行하였다. 그 구성은 권두의 <서문>과 본집 상·중·하 및 부록의 <賜祭文> 등 3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本集에는 詩 203題 212首, 雜著 10篇, 碣銘 4篇, 祭文 3篇 등이 수록되어 있다.

(3) 『大谷先生集』에 수록된 大谷의 詩文들은 그의 詩文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大谷의 평소의 詩文들은 그의 생전에 被禍의 공포로부터 이미 많은 편수가 遺漏되고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또다시 散逸되어 一丘堂이 『大谷先生集』을 편집할 당시에는 이미 遺漏·散逸되거나 改作된 시문들이 적지 않았다.

(4) 大谷의 自作 또는 他人 著作으로서 『大谷先生集』에 수록되지 않은 逸書·逸文 또는 改作으로는 著述類 3편, 詩篇類 5편, 書簡類 1편, 祭文類 5편, 挽類 4편 등이 있으며, 이들은 大谷研究의 귀중한 자료들이다.

(5) 大谷의 學風과 處世는 當代와 後代의 많은 인사에게 영향을 미쳐 當代에는 椰溪 宋希奎, 南冥 曹植, 河西 金麟厚 등 27인의 인사들이, 後代에는 尤庵 宋時烈, 魯西 尹宣舉, 白湖 尹鑄 등 19인의 인사들이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도 白湖 林悌와 眉叟 許穆 및 白湖 尹鑄 등은 학문적으로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들이며, 특히 濯溪 金相進은 大谷이 隱居한 報恩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이곳 鄉村에서 隱居하다 卒去한 조선 말기의 士林 知識人 중의 한 사람으로 大谷의 眞面目을 그대로 계승한 인물로 파악된다.

(6) 大谷의 學問과 學風은 當代의 학자들에게는 물론 後代의 濯溪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要語: 成運, 大谷, 『大谷先生集』, 逸文, 金相進

* 이 논문은 2018-2019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추가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淸州大學校 人文社會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8년 11월 7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8일

서지학연구, 제76집, 5-2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5]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works and lost sentences by Seong Un, Dae Gok.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In a dark age marred by frequent massacres of scholars (士禍), Dae Gok spent most of his life as a hermit living in Jonggok, Boeun, and the Songnisan Mountain. Rather than pursuing a successful career as a government official, he chose a life of a hermit scholar living in the wild.

(2) Dae Gok's Works (大谷先生集) was edited by his son, Kim Gagi (金可幾), in the 29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1596), and the wood block print version was published in the 36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1603) by his grandson, Kim Deokmin, with assistance from Ryu Geun. It consists of three volumes: Introduction, Body (which consists of three parts), and Appendix. The Body contains 212 poems, 10 free essays (雜著), 4 headstone epitaphs (碣銘), and 3 orations (祭文).

(3) Many of Dae Gok's poems were lost during the massacres that took place throughout his life. They were also scatter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壬辰倭亂) in King Seonjo's reign (1592). As a result, at the time of editing Dae Gok's Works, not a small number of poems had been lost or had to be rewritten.

(4) The writings of Dae Gok and others that did not make it into Dae Gok's Works include three essays (著述), five poems (詩篇), one letter (書簡), five funeral orations, and four Mallyus (挽詞). These writings are considered valuable assets for those who study Dae Gok.

(5) Dae Gok's scholarly legacy and his life had a ponderous impact on scholars in his own time as well as many that followed. Im Je (林悌), Heo Mok (許穆), Yun Hyu (尹鑄), and others were heavily influenced by Dae Gok's academic works. In particular, Tak Gye (濯溪) Kim Sangjin (金相進), a member of the Sarim (士林) scholars who lived and died as a hermit in his hometown of Boeun, faithfully followed in the footsteps of this astounding scholar.

Key words: Seong Un(成運), Dae Gok(大谷), Dae Gok's works(大谷先生集), Lost sentences(逸文), Kim Sang Jin(金相進)

1. 緒 言

大谷 成運(1497-1579)은 연산군 3년(1497)에 出生하여 선조 12년(1579)에 향년 83세로 卒去한 인물로 忠淸道 報恩의 鍾谷과 俗離山 자락을 중심으로 활동한 山林處士 중의 한 사람이다.¹⁾

大谷은 松堂 朴英(1471-1540)의 문인²⁾으로 일찍이 중종 26년(1531)에 進士試에 급제하였으나, 그의 季兄인 成遇(1495-1572)가 명종 즉위년(1545)의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被禍되자³⁾ 舉業을 포기하고 妻鄉인 報恩의 鍾谷에 은거하며 湖西處士로서의 입지를 견지한 인물이다.

昌寧成氏 문중 출신 중에는 大谷을 비롯하여 山林處士로 일생을 보낸 인사가 적지 않다. 靜庵 趙光祖(1482-1519)의 문인으로 槐山의 白岳山 자락에 은거하며 전형적인 山林處士로 여생을 보낸 聽松 成守琛(1493-1564)은 그의 從兄이며, 畿湖學派의 원류로 중시되는 牛溪 成渾(1535-1598)은 그의 堂姪이다.

大谷은 詩文에 능하여 은둔과 불교적 취향을 드러낸 시를 많이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花潭 徐敬德(1489-1546), 南冥 曹植(1501-1572), 東洲 成悌元(1504-1559), 土亭 李之菡(1517-1578) 등과 교류하며 學問에 정진한 인물이다. 이러한 大谷의 思想과 學風은 當代에도 높이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後代의 眉叟 許穆(1595-1682)과 白湖 尹鑄(1617-1680) 등 近畿南人의 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大谷은 평생토록 특별히 중요한 官職을 역임한 바도 없으며 그의 詩文集인 『大谷先生集』의 분량이 그다지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독특한 형태로 後嗣子를 세운 점 등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研究나 評價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本稿는 大谷의 學問·思想·學風을 비롯하여 『大谷先生集』에 수록된 저술의 內容과 逸文 및 그의 後響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을 고찰하여 정리함으로써 大谷 成運 研究의 기초적인 자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大谷의 學問과 思想

大谷은 戊午(1498)·甲子(1504)·己卯(1519)·乙巳(1545) 등의 士禍가 빈번한 朝鮮 中期의 암

1) 大谷 成運의 生涯와 後嗣에 관하여는 朴文烈, “大谷 <成運誌石>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69輯(2017. 3), 193-220.를 參看할 것.

2) 朴英, 『松堂先生文集』.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朴鍾基], [高宗 1(1864)]. 卷3. 附錄. ‘門人錄’條. “成運 字健叔 號大谷 昌寧人 徵士 官司瞻寺正.”

3) 成濯,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AB. ‘遇’條. “遇: 學行薦參奉 明廟朝尹元衡論啓 以公乙巳被禍 郭珣輩交結之人 請拿鞠受刑 死於杖下 時人痛之 其時委任李苞也.”

후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이들 사화는 成宗朝 이후로 성장한 士林勢力이 勳舊勢力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림세력은 자신들의 학문적·정치적인 성장에서 훈구세력의 逆攻을 받아 擧業과 出仕를 단념하고 山林에서 處士로 은거하며 현실비판과 자신들의 입지를 견지하기에 이르렀다.

大谷도 35세이던 중종 26년(1531)에 司馬試에 급제하였으나 大科에는 응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遺逸로 천거⁴⁾되었으나 出仕하지 않고 妻鄉인 忠淸道 報恩의 鍾谷에 은거⁵⁾⁶⁾하였다. 大谷이 山林에 은거한 원인은 季兄인 成遇가 乙巳土禍에 被禍된 일⁷⁾과 자신이 龍門寺에서 독서를 하던 젊은 날에 어느 노인과 나눈 對話⁸⁾ 등의 영향에서였던 듯하다. 나아가 大谷이 妻鄉인 鍾谷에 은거한 것은 생활수단과 학문연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가능하였던 때문으로 파악된다.⁹⁾

大谷은 일생의 대부분을 鍾谷에 은거하며 徐花潭·曹南冥·成東洲·李士亭 등의 士林學者들과 깊은 교분을 맺으면서 학문에 정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大谷은 젊은 시절에 南冥과 漢城의 인근에 살았을 뿐 아니라, 중형인 聽松으로 인하여 南冥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후일에 大谷과 南冥은 비록 忠淸道の 俗離山과 慶尙道の 智異山에 서로 멀리 떨어져 은거하였으나, 때로는 詩篇과 書簡을 교환하며 때로는 상대방을 서로 弟子와 後進의 스승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¹¹⁾ 이러한 정황은 『大谷先生集』과 『南冥先生集』에

4) 大谷은 46세인 중종 37년(1542)에 社稷署參奉으로, 57세인 명종 8년(1553)에 光陵參奉으로 薦擧된 바 있으나 모두 不仕하였다.

5) 權鼈, 『海東雜錄』.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發不明], [筆寫年不明]. 卷4. 本朝4. ‘成運’條.
“昌寧人 字健叔 府院君汝完之後 寓居報恩鍾谷 以山水自娛 自號大谷 我中廟壬寅 起拜社稷署參奉 不就 明廟以六行俱備 起授六品職 轉至司宰監正 皆不就 平生杜門求道 造詣精深 曹南冥[冥]常以知己友許之 ….”

6) 李廷馨, 『知退堂集』.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1. 卷5. 雜記. 壽春雜記. ‘[成遇成運]’條.
“… [成]遇之弟運 號大谷 隱居講學 明廟擢授六品 驛召賜對不就職 今上朝除掌令召 不起.”

7) 申欽, 『象村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0. 卷52. 漫稿下. ‘晴窓軟談下’條.
“成大谷名運 生有美質 早脫世網 其兄遇遭乙巳之難 死於非命 自此益無意於時名 遜居報恩俗離山下 ….”

8)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宣祖 36(1603)]. 卷上. ‘龍門寺東距六七里有石窟 僧言有一老人棲息其中 積八九年絕粒不食 夜坐看月 向晨不寐 時余在寺讀書 往見與之語 疑其爲遁世自晦者 故以詩贈之’條.
“避世藏山穴 無人知姓名 松根隨鶴息 巖逕逐雲行 賞月寒眸淨 飡霞瘦骨輕 魂清自少睡 盡夜聽溪聲.”

9) 成渾, 『牛溪先生集』. 木板本. [昌寧]: [勿溪書院], [純祖 9(1809)].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先生娶慶州金氏副司直碧之女 金氏居報恩鍾谷 先生就家焉 ….”

10) 宋時烈, 『宋子大全』. 木板本. [箕營]: [發行處不明], [正祖 11(1787)]. 卷172. 墓碣銘.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先生所友曹南冥徐花潭李士亭 皆問世名賢 先生與南冥最爲莫逆交 蓋南冥有壁立千仞底氣象 而先生濟以溫厚 南冥曰 健叔如精金美玉 吾所不及也 … 至其一門之賢 如聽松東洲牛溪板谷 連芳并彩 大爲一時之壯焉 東洲嘗宰報恩 南冥士亭 花潭皆遠至 爲對床連夜語 李相國浚慶聞之曰 應有德星見於天矣 ….”

11) 曹植, 『南冥先生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海君 1(1609)]. 卷2. 書. ‘與成大谷書’條.
“… 尤羨公會得疾 耳無所聞 而機關深閉也 此事何足聞及於公也 索居深谷 無與開吐 聊因筆舌 代與開露 今去數君 嘗從吾遊者 常欲奉謁於案下 今方委進 因入俗離 亦代以老顏送去 聊於緒言爲望 此後消息 定應漠漠 猶自相續者 憧憧 意者 天其憫我 不絕一線心路耶.”

수록된 詩類에 大谷과 南冥이 주고받은 詩篇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¹²⁾ 있으며, 아울러 서로 간에 교환된 서간이 적지 않게 수록된 점¹³⁾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 결과 退溪 李滉(1501-1570)은 南冥과 大谷의 관계를 “南冥은 高邁하고 卓絶하며 大谷은 淳實과 和平을 잘 조절하였다.”¹⁴⁾고 이들의 각별한 친분을 칭송하고 있다.

大谷이 鍾谷에 은거하면서부터 俗離山 자락은 당대 山林處士들의 集會所가 되어 南冥을 비롯한 聽松·東洲·花潭·土亭 등은 속리산에서 회동하기도 하였다. 이는 燃藜室 李肯翊(1736-1806)의 “大谷은 속리산에 은거하며 거문고와 독서로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 일찍이 南冥이 大谷을 방문하였을 때에 마침 東洲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南冥과 東洲는 초면에 옛 친구와 같이 친하여졌으며, 花潭과 土亭도 달려와 더불어 여러 날을 함께 즐겼다.”¹⁵⁾는 기록을 통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大谷은 자질이 단정하고 志氣가 호탕하며 學問은 오로지 마음을 보존하고 本性을 기르는 데에 專力하여 言語에는 근거가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었으나, 끝내 세상에 수용되지는 못하였다.¹⁶⁾ 그러나 大谷이 추구한 學風은 마음의 修養을 실천하는 性理學은 물론 老莊思想에 관심을 기울인 점이라 할 수 있다.

大谷이 修養을 중시한 것은 士禍를 통한 정치적 현실을 경험하면서 修養에 매진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절감한 때문인 듯하다. 이는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선생은 운순한 품성과 豪邁한 기질의 소유자로 학문은 오로지 本心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르는 ‘存養精索’에만 힘썼으므로 선생의 言辭에는 사실의 뒷받침이 있고 선생의 行實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¹⁷⁾라고 한 점이나 大谷 자신이 “聖賢의 書籍은 반드시 마음과 眼目에 정착시킨

- 12) 『大谷先生集』에 수록된 南冥을 대상으로 하는 大谷의 詩篇으로는 <寄健仲>·<次韻酬答崔孝元健仲亦次其韻思其人不可見又作一絕寄懷於泉壤之下>·<悼南冥>·<[附]用大谷韻呈賢佐(南冥)>·<[附]和大谷兼示賢佐(南冥)>·<次韻答健仲(2首)>·<贈別南冥>·<秋夜憶健仲>·<示南冥>·<憶健仲> 등이 있으며, 반면에 『南冥先生集』에 수록된 大谷을 대상으로 하는 南冥의 詩篇으로는 <寄健叔(二首)>·<和健叔呈崔賢佐于金積山齋>·<和健叔>·<無名花(寄健叔)>·<兼贈太溫健叔>·<奉和健叔因問金太容(健叔成大谷字名運)>·<寄大谷>·<贈別大谷(丙寅同被召命時作)>·<寄大谷> 등이 있다.
- 13) 『大谷先生集』에는 書簡文이 전혀 수록되지 않고 있으나, 『南冥先生集』에 수록된 大谷을 대상으로 하는 南冥의 書簡으로는 <與成大谷書>(5回)·<答人書贈> 등이 있다.
- 14) 李肯翊, 『燃藜室記述』. 鉛活字本. 京城: 朝鮮光文會, 1912. 卷11. 明宗朝故事本末. 明宗朝遺逸. ‘成運’條. “... 李滉每稱 健叔清隱之 致令人起敬 公最與曹植 爲莫逆友 植高邁卓絶 公以淳實平和和濟之 植每稱 健叔如精金美玉 吾所不及.”
- 15)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11. 明宗朝故事本末. 明宗朝遺逸. ‘成悌元’條. “... 成運隱俗離 安靜恬談 琴書自樂 曹植嘗來訪 公適在座 植與公初面親若舊友 徐敬德李之藹 亦連袂而至 同歡數日 ...”
- 16)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11. 明宗朝故事本末. 明宗朝遺逸. ‘成運’條. “... 資稟端純 志氣豪逸 其學專務存養精頤 故其言有物 其行有常 然終不爲世用.”
- 17) 宋時烈, 『宋子大全』. 卷172. 墓碣.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 成氏古稱多賢 退陶先生所謂隱成 卽先生也 先生資稟溫純 志氣豪邁 其學專務存養精索 故其言有物 其行有常 然終不爲世用 故謂之隱成 而又惜時人不知其高云爾 ...”

다음에 그 뜻을 새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口頭의 학문에 지나지 않을 뿐 어찌 上達을 바랄 수 있겠는가?”¹⁸⁾라고 한 점에서 修養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體得의 實踐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大谷의 學風은 학자로서의 修養과 實踐을 중시하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의 시문집인 『大谷先生集』에 수록된 <虛父贊>과 <醉鄉記> 등에는 隱逸的·老莊的인 사상의 경향도 없지 않다. 大谷은 <虛父贊>에서 “지푸라기로 엮어 만든 人形을 세속에서는 ‘虛父’라 한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귀가 먹어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혼란하여 사람으로서 할 일을 잘 살피지도 못하면서 그저 몰골만 멀쩡할 뿐이다.”¹⁹⁾고 하면서 ‘허수아비’를 통하여 세태를 풍자하고 있으며, <醉鄉記>에서는 자신이 비록 山林에 은거하고 있으나 자신의 志節만은 반드시 잘 지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²⁰⁾ 있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大谷은 正道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出仕하여 顯達을 구하기보다는 山林處士로서 自娛·自足한 인물로 높이 평가²¹⁾되어 마땅할 듯하다.

3. 大谷의 著述과 逸文

大谷의 평소 저술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 그의 저술로는 『大谷先生集』만이 전래되고 있을 뿐,²²⁾ 그의 저술로 알려진 『易學圖說』²³⁾·『南冥行錄』²⁴⁾ 등은 전래되지 않고 있다.

3.1 『大谷先生集』의 編纂과 刊行

大谷의 시문집인 『大谷先生集』의 編纂과 刊行에 관하여는 『大谷先生集』의 卷頭に 수록된 西垌

18) 宋時烈, 『宋子大全』. 卷172. 墓碣.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 先生髫年志道 長益涵揉 嘗曰 聖賢之書 必須大著心胸 高著眼目以求之 不然則句讀而已 其於上達 豈能有望 然外事物而談性命非學也 顯微精粗 必交致其功 然後無架虛躐等之弊矣 又曰 學者立志爲先 若不激昂振作 雖有美質 決無有成之理 志立然後細察吾心 纔覺有己私 勇猛克去 不留苗脈 則自然天理昭著矣 ...”

19)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中. 雜著. ‘虛父贊(并序)’條.

“縛草爲人形者 俗謂之虛父 僕年來 耳聾不聞人聲 心昏不知人事 徒有形骸外完 正似虛父 故以虛父自號 因而爲贊 贊曰 肌以藁筋以索 人其形塊然立 心則亡虛其腹 中天地絕聞觀 處無知誰與怒.”

20)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中. 雜著. ‘醉鄉記’條.

“余竊悲生於季世 處躬於塵 拘攣窘束 ... 誓將立於斯坐於斯老於斯死於斯 沒世而無聞 吾無悔焉 方將敘述土風民心之淳 以告夫迷而不返者 辭未就章而鳴鍾戒朝 忽悟而起 塊然一肉 尙格於窓櫺之下矣.”

21) 申炳周, “大谷 成運의 學風과 處世,” 『南冥學』 第7卷(1999), 339-364.

22)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宣祖 36(1603)].

2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影印本. 서울: 明文堂, 1982. 天地篇·地理類. 地理總說. ‘地毯轉運辨證說’條. “成大谷運所輯易學圖說 ...”

24) 鄭弘溟, 『畸翁漫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成大谷作南冥[冥]行錄’條. “成大谷作南冥[冥]行錄 ...”

柳根(1549-1627)의 <大谷集序>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선생은 三山(報恩)縣의 大谷(鍾谷)에 은거하면서 여러 차례 조정의 徵召를 받았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향년 83세로 졸거하니, 학자들이 존중하고 사모하여 ‘大谷先生’이라 칭송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나의 先隴은 始安(槐山)에 있는데 三山과는 그리 멀지 않다. 어려서부터 선생이 그곳에 살고 있음을 알고 남몰래 敬仰하였으나 단 하루만이라도 선생의 門下로 달려가 가르침을 청하지 못한 점을 항상 후회할 뿐이다. [내가] 병신년(1596) 가을에 道伯으로 부임하였을 때 金可幾 君은 三山에 살면서 선생의 詩集을 함께 간행할 것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당시는 매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7년이 지나 다시 부임하니 金君은 벌써 세상을 하직하고 그의 아들 德民이 뜻을 같이하는 道內의 士友들과 함께 公山(公州)으로 나를 찾아와 이 일을 상의하였다. 무릇 평생토록 마음으로 景仰하면서도 지난날 능력이 없어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을 이렇게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오늘을 기약하였던 것이려니, 어찌 더한층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곧바로 이를 위한 財物과 工匠을 모으고 음식과 수고의 비용도 조달하여 두 달이 걸려 工役을 마치니, 諸公이 그 顛末의 識語를 간청함에 고루한 문장이나마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 가만히 詩集을 읽어보니 선생은 천성이 매우 고매하고 내면의 수양도 심오하여 우연히 읊조린 시들도 한가로이 회포를 달랜 작품들이라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조금씩 그 旨趣를 참구하니 간결하여 한 점의 俗塵도 없거나 아무리 애를 써도 오를 수 없는 氣象이 있거나 조용히 스스로 체득한 작품들이라, 상하가 함께 어울려 각각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생이 평소에 노력한 점은 항상 德性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들 작품에는 이러한 비밀을 숨기지 못한 채 드러내고 말았으니, 그 아름답고도 융성함이며! 일찍이 덕망이 있는 어른들께 듣자니, 우리 조정에서 인재의 융성함은 반드시 己卯名賢을 으뜸으로 일컬었으나 곧이어 士禍가 일어나면서 을사년(1545)에 이르러서는 극심하였다고 한다. 이에 士類들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세상에 잘 同化하여, 어찌 구차하게 士禍의 피해에서 벗어나 자신의 保身을 위하여 혼자만 立身할 수 있을 것이던가! 탁월하고도 깊은 造詣여! 이치에도 밝고 일에도 밝은 나머지 부끄럼이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전혀 안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 大谷先生 만한 이가 있음을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으니, 그 순수한 性情의 발로가 한결같이 正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선생의 仲氏(成遇)가 乙巳士禍에 간신에게 거슬린 나머지 중상모략으로 慘酷을 당하자, 이때부터 선생은 세상사에 마음을 두지도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때로는 자연에서 세상을 잊고 자세한 연구와 함양의 경지에 이르러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됨됨이를 엿볼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람으로 대접을 하였다. 사람들은 그저 쉽게 이루어고만 할 뿐 마음속으로 느끼는 진정한 복종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늘, 학문적 노력이 없었다면 어찌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선생의 學德과 道義는 더없이 아름답고 높으며 한없이 겸허하여 감히 文章을 찬술하여 후세에 남기기를 자처하지 않았던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이 한 帙의 詩集밖에 없으니 어찌 문어만 두고 전하지 않아서 될 일이겠는가! 선생은 後嗣가 없어 부인의 오빠(兄)로 군수를 역임한 金天富 公의 아들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여 일찍이 仲氏의 딸이 어려서 孤兒가 되어 출가하지 못한 것을 애통히 여기던 나머지, 마침내 妻로 삼도록 하여 後事를 부탁하였으니 그가 곧 金可幾 君이다. 오호라! 學德이 있어야 그 언행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詩集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百世의 뒤에라도 선생의 가슴속 생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며 후학들에게 존경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풍속의 教化에 어찌 자갈한 이익에 지나지 않을 뿐이겠는가! 이로써 跋文으로 삼고자 한다.

萬曆 31년(1603) 2월 하한에 正憲大夫 行忠淸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都巡察使 公州牧使 後學 柳根은 錦水(錦江)의 新營에서 쓰다.²⁵⁾

25)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序. ‘大谷集序[柳根]條. <對校: 『大谷先生集』原文(『西桐集』原文)> “先生隱居三山縣之大谷(先生隱居大谷仍以自號)屢蒙徵召 終不就列 享年八十有三 學者尊慕之稱大谷先生(大谷即三山縣之佳處也) 竊念小子先隴在始安 始安距三山未遠也 自年少時 已知有先生 而心竊景仰之 每恨一日未及趨造門牆以請教焉耳 歲丙申秋 來涖此道也 金君可幾方在三山(握節而來也 金君可幾尙無恙也) 蓋欲

<大谷集序>를 통하여 볼 때, 『大谷先生集』은 선조 29년(1596) 무렵에 大谷의 門人·弟子이며 妻姪·姪壻인 동시에 後嗣子인 一丘堂 金可幾(1537-1597)에 의하여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一丘堂은 大谷의 시문을 수집하고 『大谷先生集』의 편찬을 완료하여 선조 29년(1596) 가을에 道伯으로 부임²⁶⁾한 西垞을 찾아가 함께 문집을 刊行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당시는 壬辰倭亂을 겪은 직후라 여러 형편이 어려워 간행하지 못한 채 이듬해 丁酉再亂(1597)으로 마을에 침입한 倭賊에 항거하다가 殉節하고 말았다. 당시 一丘堂의 부인 全州柳氏는 남편을 구하려다 殉節하고 子婦 高靈申氏도 피난 중 倭寇를 만나 自決하여 一家의 3인이 한 날에 殉節하고 말았다. 그 후로 7년이 지난 선조 36년(1603)에 西垞이 재차 道伯으로 부임²⁷⁾하자, 一丘堂의 아들이며 大谷의 後嗣孫인 澗西齋 金德民(1570-1651)이 뜻을 같이하는 道内の 士友들과 함께 西垞을 찾아가 文集을 刊行하는 일을 상의하였다. 이에 西垞도 흔쾌히 동조하며 財物과 工匠을 모으고 음식과 수고의 비용을 조달하여, 2개월 만에 『大谷先生集』의 刊行을 畢役한 것이다.

따라서 『大谷先生集』은 선조 29년(1596) 무렵에 大谷의 後嗣子인 一丘堂에 의하여 3권으로 편찬되었으며, 선조 36년(1603)에 그의 後嗣孫인 澗西齋와 西垞의 노력으로 목판으로 刊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大谷先生集』은 卷頭の <序文>과 本集 상·중·하 및 附錄의 <賜祭文> 등 3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卷次別로는 卷上에 詩, 卷中에 詩와 雜著, 卷下에 碣銘과 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頭에는 忠淸道觀察使이며 後學인 西垞의 <大谷集序>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西垞集』에

與之謀所以刊行先生詩集 而時屬多艱 力所未遑 常慊慊也 七年之後 又忝是職(再有是命) 而金君已下世 金君之胤子德民 乃與道內同志之士 來訪于公山 告以是事 夫以平生景仰之心 成此向所未遑之事 殆若有待於今日 安敢不加之意也 既爲之鳩材聚工 又助以供饋償役之費 再閱月而工告訖 諸公固要一言識其顛末 不敢以孤陋辭 竊取是集而讀之 先生天分甚高 充養又深 其偶發於吟詠者 驟而見之 閑中遺懷之作 似若不甚經意 而從究其趣 則或簡潔而無一點塵垢 或嶄絕而有不可攀之氣象(嶄絕而有不可攀之氣象) 或從容自得 有上下同流 各得其所之意味(各得所之意味) 先生平日用力 常在於隱德不耀 而至此有終不可秘之者 猗歟盛哉 竊嘗聞於先生長者 我朝人材之盛 必以己卯爲稱首 未幾士林之禍起 至于乙巳而極矣 於是爲士者 斲方爲圓 和光混塵 苟焉爲全身遠害之圖 求其超然獨立(其超然獨立) 卓乎深造 無愧於既明且哲 不見是而無悶 如吾大谷先生者 蓋未之聞也 宜乎發於性情者若是其粹然一出於正也 先生仲氏 於乙巳之禍 觸忤權奸 遂被中傷極慘 先生自是而絕意於世 其平居蕭散沖澹 往往與魚鳥相忘於山水之間 其所著力於研精涵養之地者 又非人所能窺其際 而其與人接也 人但見其渾然天成 不自覺心醉而誠服 非學之力 其何能致此 先生德既邵矣 道既高矣 猶且謙謙 不敢以立言垂後自居也 今其存者 只此一帙而已 豈可使泯沒而無傳也 先生無嗣 乃取夫人之兄郡守金公天富之子 養之教之 嘗痛仲氏之女早孤而無歸也 遂妻之(嘗痛仲氏之非命而無後也 遂妻以仲氏之女) 因託以後事(因托以家事) 是卽金君可幾也 嗚呼 有德而後 其言能使人感動 卽是編而紬繹焉則百世之下 亦可想見其胸中之所存 而使後學有所矜式 其於風化 豈曰少補之哉 是爲跋 萬曆三十一年二月下澣 正憲大夫 行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公州牧使後學柳根 書于錦水之新營(無記錄).”

26) 春秋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宣祖 30年 2月 18(己卯)日條.

“弘載曰 忠淸監司柳根 調發民兵之際 不量田結多少 一名之價 多至十石 胡亂分定 使大家世族 盡爲流散 其罪豈止推考哉 …”

27) 春秋館, 『朝鮮王朝實錄』, 宣祖 35年 9月 12(辛未)日條.

“忠淸道觀察使柳根 拜辭後啓曰 蟻蟲微臣 猥蒙寵擢 待罪宰臣之後 再有湖西之命 畀之以撫磨鎮定之責於再經兵燹 屢起逆變之餘 貢望益重 則報效尤難 以臣之愚 不知所處 …”

수록된 <大谷集序>²⁸⁾와 대비할 때 字句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表 1> 『大谷先生集』의 編次와 收錄內容

卷次	文型	收錄內容	篇數
卷頭	序	<大谷集序(柳根)>	1
卷上	詩	<陪二兄携友一人泛舟遊屯德灘乘夜乃還>·<遊南亭川上>·<同季兄中慮讀書龍門寺三闕月出山途中偶吟>·<遊南江>…<竹雨堂題詠>·<次[盧蘇齋]韻>·<寄贈永山神君仲宣>·<謝鍾山老人送酒> 등	201/210 (重 8/9) (他 3/3)
	詩	<送田上人(并序)>·<上邑宰成東洲> 등	2/2
卷中	雜著	<虛父贊(并序)>·<大旱賦(并序)>·<蛇說>·<答友>·<醉鄉記>·<請旌閭孝行疏(代人作)>·<請文官邑宰疏(代人作)>·<聽松先生遺事>·<辭職上疏>·<謝賜粟帛書> 등	10
卷下	碣銘	<柳氏[金碧妻]墓碣>·<南冥先生[曹植]墓碣>·<希庵[金泰巖]墓碣>·<朴承旨[薰]墓碣> 등	4
	祭文	<祭南冥先生文>·<祭朴節度使文(代人作)>·<三山書院祭沖庵文> 등	3
卷末	附錄	<賜祭文>	1
合計		序文 1篇, 詩 206題215首(他詩 3題3首, 重詩 8題9首), 雜著 10篇, 碣銘 4篇, 祭文 3篇, 賜祭文 1篇	

卷上에는 他人의 附詩 3題를 포함한 204題 213首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다. 他人의 附詩는 南冥의 <用大谷韻呈賢佐>와 <和大谷兼示賢佐> 및 盧守愼의 <呈大谷> 등의 3題 3首이며, 題數와 篇數의 차이가 있는 詩篇들은 <挽詞>(2)·<次黃仲舉韻>(2)·<遊俗離>(3)·<送仲宣秩滿還洛>(2)·<偶吟>(2)·<次韻答樅仲>(2)·<清牧挽詞>(2)·<次[盧蘇齋]韻>(2) 등 8題 9首이다. 대부분의 詩篇은 遊覽·名勝·人物·日常 등에 관련된 것으로 詩體의 区分이 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閑居할 때의 감흥을 읊거나 南冥과 東洲 등과의 酬唱詩를 비롯하여 報恩의 주변과 俗離山 등을 유람하면서 자연의 景物을 읊은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卷中에는 <謝鍾山老人送酒>·<送田上人(并序)>의 2題 2首의 詩篇과 <虛父贊>·<大旱賦>·<蛇說>·<答友>·<醉鄉記>·<請旌閭孝行疏>·<請文官邑宰疏>·<聽松先生遺事>·<辭職上疏>·<謝賜粟帛書> 등의 雜著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의 <虛父贊>은 自號를 ‘虛父’라고 한 연유에 관하여 기술하고 <醉鄉記>는 山林에서 자신의 志節을 지키려는 의지를 술회한 것으로, 이들 문장은 ‘老莊의 風’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聽松先生遺事>는 저자의 從兄인 聽松 成守琛의 事蹟을 기록한 것이다.

卷下에는 碣銘 4편과 祭文 3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柳氏墓碣>은 丈母인 文化柳氏의 傳記資料이고 <南冥先生墓碣>은 知友인 南冥 曹植의 전기자료이며, <希庵墓碣>은 希庵 金泰巖(1477-1554)의 전기자료이고 <朴承旨墓碣>은 江叟 朴薰(1484-1549)의 전기자료이다. <祭南冥先生文>은 南冥의 제문이고 <祭朴節度使文>은 松堂의 제문이며 <三山書院祭沖庵文>은 己卯名賢인 沖菴 金淨(1486-1521)의 祭文이다.

卷末의 附錄에는 선조 12년(1579) 6월에 宣祖가 내린 <賜祭文> 1편이 수록되어 있다.

28) 柳根, 『西峒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顯宗 6(1665)], 卷6. 序. ‘大谷集序’條.

3.2 大谷의 逸文

『大谷先生集』에는 大谷의 詩 203題 212首와 雜著 10篇, 碣銘 4篇, 祭文 3篇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그의 시문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大谷의 생전에도 戊午·甲子·己卯·乙巳 등의 士禍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선조 12년(1579)에 그가 卒去한 후 선조 29년(1596) 무렵에 一丘堂에 의하여 『大谷先生集』이 편집되던 동안에는 壬辰倭亂(1592)과 丁酉再亂(1597) 등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谷의 평소의 詩文들은 그의 생전에 被禍의 공포로 이미 많은 편수의 詩文들이 遺漏되고 그나마 남은 시문들조차도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遺漏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어, 一丘堂이 『大谷先生集』을 편집할 당시에는 이미 遺漏되거나 改作된 詩文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2> 大谷의 逸文과 改作

番號	文型	逸·改	題名	篇數	撰者	生沒年	根據文獻	備考
01	詩	改	〈成大谷詩史〉	1	宋希奎	1494-1558	『椰溪先生文集』. 卷3. 附錄.	
02	書	逸	〈答人書贈(答書)〉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4. 補遺.	
03	吊狀	逸	〈護喪所吊狀〉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4. 補遺.	
04	挽	逸	〈大谷挽詞〉	2	宋寅	1517-1584	『頤庵遺稿』. 卷1. 詩.	
05	祭文	逸	〈祭大谷先生文〉	1	成渾	1535-1598	『牛溪先生集』. 卷6. 雜著.	
06	祭文	逸	〈成大谷祠宇祭文〉	1	李珥	1536-1584	『栗谷先生全書』. 卷14. 祭文.	
07	挽	逸	〈挽成大谷〉	2	河沆	1538-1590	『覺齋先生文集』. 卷上. 詩.	
08	祭文	逸	〈祭成大谷(運)文〉	1	鄭述	1543-1620	『寒岡先生文集』. 卷11. 祭文.	
09	詩	改	〈辨師誣兼論學政疏〉	1	趙憲	1544-1592	『重峯先生文集』. 卷5. 疏.	
10	挽	逸	〈大谷先生挽〉	1	林悌	1549-1587	『白湖集』. 卷1. 五言長篇.	
11	祭文	逸	〈祭大谷先生文〉	1	林悌	1549-1587	『白湖集』. 卷4. 文.	
12	詩	改	〈晴窓軟談下〉	2	申欽	1566-1628	『象村先生文集』. 卷52. 漫稿下.	
13	行錄	逸	〈大谷作南冥行錄〉	1	鄭弘溟	1582-1650	『畸翁漫筆』.	
14	行錄	逸	〈大谷作南冥行錄〉	1	鄭弘溟	1582-1650	『畸庵集續錄』. 卷12. 漫述.	
15	挽	逸	〈大谷成健叔(運)挽〉	1	金光炫	1584-1647	『水北遺稿』. 卷3. 詩.	
16	行錄	逸	〈書大谷先生言行錄後〉	1	尹鐸	1617-1680	『白湖先生文集』. 卷21. 跋.	
17	詩	改	〈與朴季肯(世堂)〉	1	尹拯	1629-1714	『明齋遺稿』. 卷10. 書.	
18	時調	逸	〈堯舜갓튼님 ... 줄을모로리라〉	1	金天澤	1687-1758	『靑丘永言』. '成運'條.	
19	詩	逸	〈與李景協書〉	1	安鼎福	1712-1792	『順菴先生文集』. 卷4. 書.	
20	著述	逸	〈地毯轉運辨證說〉	1	李圭景	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地理總說.	

大谷의 自作 또는 他人 著作으로서 逸文 또는 改作으로 짐작되거나 『大谷先生集』에 수록될 만한 것으로는 著述類·詩篇類·書簡類·祭文類·挽類 등이 있다.

(1) 著述類: 五洲 李圭景의 <地毯轉運辨證說>²⁹⁾에는 大谷의 저술로 『易學圖說』이 있었던 것으로

2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地理類. 地理總說. '地毯轉運辨證說'條.

로 기록되고 있으며 白湖 尹鑄의 <書大谷先生言行錄後>³⁰⁾는 大谷의 조카인 板谷 成允諧의 編述인 『大谷先生言行錄』을 읽고 쓴 <後序>이나, 현재 이들 서적이 傳來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崎庵 鄭弘溟은 <南冥遇一少年後人疑其奇高峯而不知何所據>³¹⁾와 <成大谷作南冥行錄>³²⁾에서 大谷이 編述한 『南冥行錄』의 句節들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본서가 傳來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따라서 『易學圖說』·『大谷先生言行錄』·『南冥行錄』 등은 大谷의 逸書인 것이다.

(2) 詩篇類: 金天澤의 『靑丘永言』에는 大谷의 時調 1수가 수록³³⁾되어 있고 順菴 安鼎福의 <與李景協書>에는 大谷의 詩題 不明의 “相逢不用談山水 談水談山亦忤人”이라는 詩를 인용³⁴⁾하고 있으나, 이들은 『大谷先生集』에 수록되지 않은 그의 逸詩들이다. 또한 『大谷先生集』 권상에 수록된 <書座壁> 중의 “事往嗟何及 懷賢淚濕衣 波乾龍爛死”³⁵⁾의 시구를 倂溪 宋希奎³⁶⁾와 重峯 趙憲³⁷⁾ 및 明齋 尹拯³⁸⁾ 등은 각각 改作하여 인용하고 있으며, 『大谷先生集』 권상에 수록된 <村居書事>³⁹⁾

“成大谷運所輯易學圖說 ….”

- 30) 尹鑄, 『白湖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7. 卷21. 跋. ‘書大谷先生言行錄後’條.
“右言行錄 成大谷先生平日言行 板谷成公聞德所集錄者也 先生懷寶遜世 不求人知 隱於湖西離山之下 垂五十年以沒 沒而無門人子弟布揚之 以故言行不大著 幸是錄出於板谷成公 成公即先生之猶子 而栗谷李文成所稱 逸民有才德者也 其言固無阿所好 其所記孝友之行 獨立之操 辭受之節 進退之義 學問之功 進修之方 俱可爲來世之法 及誌墓文字所以狀德貌行者 言而有文 質而不華 又足以傳諸學者而示久遠 自我觀之 若先生者 殆夫子所謂篤信好學 守死善道 以道爲隱見者非耶 先生學聖人之道 懷橫厄之憂 而見幾遐舉 殉身以往 卒與鳳歌荷蕢者伍 而伏死於大山嶽巖之中 既沒而有遺文數卷行世 見其發於吟嘯歌詠之餘者 皆儻然高遠有出塵之趣 其醉鄉記虛父贊 寓意悲恻 足爲世道流涕 且聞先生遺戒勿立墓表 後人用不敢爲顯刻揄揚 但以片石識其塚處 牛溪成文簡書其陰 亦唯曰公居林下四十年 其所以杜門求志者 必有其學 謙退確守者 必有其見 玩而忘飢 不知老之將至者 必有其樂 人但見考槃澗谷 琴書自娛 而若其所存 則鮮能窺測而已 嗚乎 此又可以見先生避世潛名之志 而其高風卓節 足以廉頑立懦 湖鄉士子謀欲刻先生言行 遂書此而諗之.”
- 31) 鄭弘溟, 『崎庵集續錄』.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卷12. 漫述. ‘南冥遇一少年後人疑其奇高峯而不知何所據’條.
“成大谷作南冥行錄 有云公遊頭流時 遇一少年 語人曰 陰猜猖嫉 仇視善人 後日若使得志 善類赤矣 後人或疑其指奇高峯 而不知何所據也 可怪.”
- 32) 鄭弘溟, 『崎翁漫筆』. ‘成大谷作南冥[冥]行錄’條.
“成大谷作南冥[冥]行錄 有云 公遊頭流時 遇一少年 語人曰 陰猜猖嫉 仇視善人 後日若使得志 善類赤矣 後人或疑其指奇高峰 而不知何所據也 可怪.”
- 33) 金春澤, 『靑丘永言』. 新鉛活字本. [京城]: 京城帝國大學, 昭和 5(1930). p.17. ‘成運’條.
“堯舜갓튼님군을되와聖代를다시보니太古乾坤에日月이光華 | 로다우리도壽域春臺에늘금줄을모로리라.”
- 34)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4. 卷4. 書. ‘與李景協書(丙子)’條.
“… 成大谷詩 相逢不用談山水 談水談山亦忤人 此翁之清名直節 終古不磨者 嘿之功 與有多焉 ….”
- 35)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上. 詩. ‘書座壁’條.
“事往嗟何及 懷賢淚濕衣 波乾龍爛死 松倒鶴驚飛 地下忘恩怨 人間說是非 仰瞻黃道日 誰得掩光輝.”
- 36) 宋希奎, 『倂溪先生文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憲宗 13(1847)]. 卷3. 附錄. ‘成大谷詩史’條.
“事往何嗟及 懷賢淚滿衣 波乾龍爛死 松倒鶴驚飛 地下忘恩怨 人間說是非 仰瞻黃道日 誰得掩光輝.”
- 37) 趙憲, 『重峯先生文集』. 鉛活字本. 延白: 鳳陽祠, 1934. 卷5. 疏. ‘辨師誣兼論學政疏’條.
“事往嗟何及 懷賢淚濕衣 波乾龍爛死 松倒鶴驚飛 地下忘恩怨 人間說是非 仰瞻黃道日 誰得掩光輝.”
- 38) 尹拯, 『明齋遺稿』.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4. 卷10. 書. ‘與朴季肯(世堂)’條.
“… 事往嗟何及 懷賢淚濕衣者 直箇古人苦痛語也 ….”

와 <寄樾仲>⁴⁰⁾ 중의 詩句를 象村 申欽은 <晴窓軟談下>에서 각각 改作하여 인용⁴¹⁾⁴²⁾하고 있어, 이들의 改作된 詩도 大谷의 逸詩로 그의 原詩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3) 書簡類: 南冥 曹植의 <答人書贈>의 附錄에 수록된 <附答書>⁴³⁾는 南冥의 書簡에 대한 大谷의 答書이나, 『大谷先生集』에는 수록되지 않은 大谷의 逸書簡이다.

(4) 祭文類: 『南冥先生集』에 수록된 <護喪所吊狀>⁴⁴⁾은 大谷이 선조 5년(1572)에 즐거운 南冥의 護喪所에 보낸 吊狀으로 『大谷先生集』에 수록되지 않은 大谷의 逸吊狀이다. 牛溪 成渾의 <祭大谷先生文>⁴⁵⁾과 栗谷 李珥의 <成大谷祠宇祭文>⁴⁶⁾ 그리고 寒岡 鄭述의 <祭成大谷(運)文>⁴⁷⁾

- 39) 成渾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上. 詩. ‘村居書事’條.
“窄窄低低築小堂 庭松籬竹翠成行 溪心得雨魚魚喜 屋角銜泥燕燕忙 新服稱身雙袖短 古琴便手七絃長 十年嘗盡山中藥 客至時聞口齒香.”
- 40) 成渾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上. 詩. ‘寄樾仲’條.
“冥鴻矯翼向南飛 正值秋風木落時 滿地稻梁鷓鴣啄 碧雲天外自忘飢.”
- 41) 申欽, 『象村先生文集』. 卷52. 漫稿下. ‘晴窓軟談下’條.
“春服稱身雙袖短 古琴便手七絃長 十年嘗盡山中藥 客到時聞口齒香.”
- 42) 申欽, 『象村先生文集』. 卷52. 漫稿下. ‘晴窓軟談下’條.
“冥鴻獨向海南飛 正值秋風落木時 滿地稻梁鷓鴣啄 碧雲天外自忘機.”
- 43) 曹植, 『南冥先生集』. 卷4. 補遺. ‘答人書贈’條.
附答書(成大谷)
“千里之遠 再見故人手字 情懇語苦 泫然不知涕之零也 得禪僧口報 書所未及者又多 吾喜其自公所來 言公事頗詳 與之語 竟夕不知倦 僕獲罪於天 去歲季春 仲慮兒女以疫死 吾哀其失爺 取養于家 相依爲命 今忽焉損背 顧我羸老 其將曷歸 余不知天之忍也 摧傷之餘 衰病增加 骨肉枯盡 已成怪物 又得氣證 往往而劇 呻痛之中 每念諸兄頽喪 朋友盡歸丘山 獨吾與君數人 僅屬如絲之命 又各在地隅 非徒會面無日 書亦斷絕 山齋獨坐 見月遙思於天南者 不知凡幾夜哉 公雖云有疾 神明所祐 必有眉壽 孽兒亦吾之分體 呼爺孺稠集膝下 亦足以資一笑 今又得頭流 枕雲臥 聽泉看石 養性自適 非天之所借 曷能享有此樂 比僕之冷淡生活 萬萬有加 多羨多羨 未見書 以得見書爲喜 既見書 以不得見面爲恨 情之無窮也如此 書不盡意 百不一宣.”
- 44) 曹植, 『南冥先生集』. 卷4. 補遺. ‘護喪所吊狀(成大谷)’條.
“自千里之遠 發使告哀 此豈今人事 得人傳語聞訃 逾三日得見下狀 果與前所聞者不謬 南向大哭 呼天而天不語 罔極奈何 斯人吾不敢與之爲友 仰之若喬嶽 敬之如嚴師 樛摧奄及 吾將安做 雖所居絕遠 若人鬼之不相見 時有以書問相及 擬代顏色 且喜各保性命 頗自慰解 今也見背 獨生何樂 吾欲速化 相尋於泉壤 然死者之有知無知未可知 則此亦何可必也 官家方興大役 家僕止有數箇 盡在縣庭執事 茲未亟發遣健力 奔問子妾之侍在几筵者 此恨如何 借來使之力 賻布二端 祭果棗三斗送上 家貧 力不從心 尤尤恨恨 壬申二月日 成渾得氣證 朝夕爲鬼.”
- 45) 成渾, 『牛溪先生集』. 卷6. 雜著. ‘祭大谷先生文(己卯八月)’條.
“維年月日 從姪渾 謹遣人奉酒果時羞之奠 敬祭于從叔父故正大谷先生靈筵 先生之生 維岳降精 氣溫質良 沖澹和平 早歲篤學 志慕聖涯 沈潛深造 兼茂文辭 中年懷寶 天嗇其施 旋遭世否 叔氏凶禍 羅織大張 不能及我 時乎不可 浩然高蹈 衡泌洋洋 爰得我好 我簞我瓢 浮雲富貴 虛恬靜一 淡乎無味 淡乎無味 得味之真 安土順天 萬物皆春 有水有石 足避喧煩 嬉嬉琴酒 聊與晤言 絕類離倫 孰窺其藩 不出戶庭 令聞日章 天書鼎來 聘幣是將 安車就徵 執德彌謙 弗造前席 進退謹嚴 同時被薦 匹休其鮮 卷懷而歸 抱負不展 蹈常守素 既安且固 眉壽至耄 不憂不懼 朝家隆禮 養以大老 世人咸慕 知尊其道 林下高風 鳳翔千仞 庶敦薄俗 習尚忠信 云胡一疾 遽至不憊 小子嬰疾 各處一方 病不舉扶 歿不臨喪 千里承訃 設位號哭 儀刑永隔 遺躅莫續 一訣終天 痛纏心曲 惟我先君 堂親兄弟 歲月幾何 今無在世 子子孤露 誰念我悲 窀穸既卜 卽遠有期 尙阻奔赴 悼我抱羸 緘辭致誠 往奠薄具 不忘者存 鑑此哀慕 尙饗.”
- 46) 李珥, 『栗谷先生全書』. 影印本.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卷14. 祭文. ‘成大谷祠宇祭文’條.
“天賦純粹 雪月方潔 不受世羈 考槃空谷 學務存心 琴追古音 孰伴林居 有鳥有魚 羽儀先朝 白駒過歸 立懦廉頑 百世是師 高山景行 揭敬祠宇 吉蠲酌 庶幾享右.”

과 白湖 林悌의 <祭大谷先生文>⁴⁸⁾ 등도 『大谷先生集』에 수록되지 않은 大谷의 逸祭文이다.

(5) 挽類: 頤庵 宋寅의 <大谷挽詞>⁴⁹⁾와 覺齋 河沆의 <挽成大谷>⁵⁰⁾ 그리고 白湖 林悌의 <大谷先生挽>⁵¹⁾과 水北 金光炫의 <大谷成健叔(運)挽>⁵²⁾ 등도 『大谷先生集』에 수록되지 않은 大谷의 逸挽詞들이다.

이상의 自作·他作·改作된 詩文들은 『大谷先生集』에 수록되지 않은 逸文들이며, 한결같이 大谷 研究에 귀중한 자료들이다.

- 47) 鄭述, 『寒岡先生文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卷11. 祭文. ‘祭成大谷(運)文’條.
 “嗚呼哀哉 人嶽儲精 篤生我公 愷悌所性 淡泊由中 風儀峻整 氣宇寬洪 外不勝衣 內貫秋虹 夙資麗澤 道義磨礪 矯揉日強 深密加工 靜坐彌日 端默收功 持養既久 眞實積充 剛似鍊金 瑩若磨銅 如蘭之馥 如春之融 禮謹愈恭 德造愈崇 人望自敬 狡僞獻忠 與世不偶 豈受樊籠 返駕山中 道亨身窮 富貴榮達 浮雲太空 世俗紛華 我視如矇 澗谷幽深 樹木蒨蔥 樂只於斯 一畝之宮 牛背訪壑 前導短僮 一壺自酌 和氣沖沖 吟哦時暇 寓懷孤桐 或時相值 牧叟樵童 悠悠我思 獨契洪濛 精誠之妙 鬼神唯通 夏木陰深 春草萋豐 半階雪竹 一片霜楓 晨風蕭瑟 夜月玲瓏 四時朝暮 興與人同 山日遲遲 世日恩恩 優哉悠哉 樂此長終 輝登馨聞 上徹宸聰 恩命鼎來 惟旌與弓 幽操益勵 辭以病壘 翛然雲外 冥鶴孤鴻 寵賜屢頒 禮逾陳種 遠近宗之 望若華嵩 述也後生 晚襲春風 陪奉壽言 竊幸顛蒙 惟其頑甚 愧不克躬 瞻載之忱 徒切慳慳 頃歲冬初 來叩軒櫳 引入臥內 仰德彌隆 謂感風眩 瞻視或營 我時聞之 憂心忡忡 神明扶護 恃在上穹 云何不淑 視天夢夢 自聞凶訃 憊病疲癯 奔赴未卽 增益哀恫 茲焉來哭 宿草枯蓬 目擊感生 悲愧交叢 仰惟高義 卓立吾東 不淫不移 展也豪雄 正大光明 如日曜紅 今其已矣 無復我翁 奠杯侑詞 淚發盈瞳 不亡者存 鑑此哀衷 嗚呼哀哉.”
- 48) 林悌, 『白湖集』. 影印本. 서울: 許晟社, 1984. 卷4. 文. ‘祭大谷先生文’條.
 “夫索隱行怪 聖人不爲 自銜自媒 君子恥之 自古豪傑之士 往往流入於二者之弊而不知也 其惟夷清惠和 玉潤金精 而鴻冥九霄 鳳舉千仞者 數百年來 僅有見於先生 故先生節高乎巢 許而世莫知 非獨世不知先生 而先生於世 亦不求聞知 非徒不求聞知 而唯恐其有聞有知 一丘一壑 左琴右書 簞瓢冷落 獨寐寤處者幾五十年於斯矣 若與夫世上碌碌盜名字者同日而語 則是何異梅秀於衆芳 鶴出於鷄群也耶 尼父稱遜世而無悶 不見知而不悔者 惟先生庶幾於斯言 第念末路悠悠 是非詭誤 薰蕕之不分 朱紫之相亂久矣 他日太史氏編高士傳也 安知以終南之捷徑 北岳之濫巾 一視於箕穎之清風也 言之至此 恨填於胸 嗚呼哀哉 醜女見顧 亦自爲容 以某之羸無似 累塵於司馬之水鏡 而其許與不夷於凡庸 此某所以激昂青雲 酬恩無地 半世危衷 徒自耿耿而已者也 頃余聞訃 邈在關城 腸摧膽裂 淚下如傾 其哀悼之情發於歌曲者 今作塞下之新聲矣 但糜一宦畏簡書 而初不能千里赴吊 適有京信 誤報以二十九日爲葬期 故來又不及寫哀挽而追丹旌 反顧初心 慙負幽明 荒原一哭 徹天其聲 嗚呼哀哉 北雲醉詠 難忘下榻之時 皓月清篇 還成求訣之詞 床下之拜不再 半嶺之嘯難尋 宇宙寂寥 脩夜沈沈 此後人世 斷無知音 尙饗.”
- 49) 宋寅, 『頤庵遺稿』. 影印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1972]. 卷1. 詩. 五言律詩. ‘大谷挽詞(二首)’條.
 “學造高明地 身安寂寞濱 溫醇非絕物 耿介自超塵 二聖勤褒德 殊恩重恤貧 共知仁必壽 似續恨無人.”
 “昔歲同京洛 公琴我和歌 濠梁曾賞識 谷口獨婆娑 喬嶽今安仰 清風只不磨 發揮無筆力 空有淚成河.”
- 50) 河沆, 『覺齋先生文集』. 石版本. 京城: [發行處不明], 1940. 卷上. 詩. 七言律詩. ‘挽成大谷(二首)’條.
 “天上紅爐閃躍金 人間黃土泣淪沈 奎垣星散乾坤暗 澤國龍藏日月陰 大事莫稽邦闕典 斯文無續士空林 鍾山北望愁雲合 千里孤身血滿襟.”
 “夢回殷奠碧嶺山 惺惺工程龍養壁 溫溫神色豹藏斑 冥飄八十仁非足 桃結三千歲未還 箕尾新明星煜煜 側身長望照冥頑.”
- 51) 林悌, 『白湖集』. 卷1. 五言長篇. ‘大谷先生挽’條.
 “一丘復一壑 山高而水流 人與白雲住 人去白雲留 白雲有時天際去 日暮獨歸巖下宿 斯人一去不再來 蕙帳塵生山月白.”
- 52) 金光炫, 『水北遺稿』. 木板本. [嶺營]: [發行處不明], [純祖 5(1805)]. 卷3. 詩. ‘大谷成健叔(運)挽’條.
 “盤旋早卜鳳鳴幽 脫略名韉得自由 一入醉鄉仍不返 世間人事儘悠悠.”

4. 大谷 著述의 後響

大谷은 온화하고 엄정하게 處士의 입지를 지킨 전형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敬窩 金然(1597-1638)가 그를 “端重하고 溫雅하며 平淡하고 簡易한”⁵³⁾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大谷의 學風과 處世는 後世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하다.⁵⁴⁾

호방한 詩風으로 명성이 있던 白湖 林悌(1549-1587)는 大谷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다. 白湖가 大谷의 사상을 흠모하는 역력함은 곳곳에서 나타나고⁵⁵⁾⁵⁶⁾ 있으며, 특히 그의 시 <到住雲庵>에는 弱冠에 속리산으로 들어가 大谷의 문하에서 수업한 사실⁵⁷⁾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白湖集跋>에는 “白湖先生은 어려서부터 學問에 뜻을 두고 서적을 깊이 읽고 스승을 찾아 헤매다가 鍾山의 大谷先生을 찾아가 『中庸』을 배우고 나서 俗離山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의리를 탐구하여 선생의 旨趣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 선생이 卒去하자 知己가 단절되면서 宦路의 뜻을 포기하고 스스로 山野를 방랑하기도 하고 詩·酒에 빠지기도 하였다.”⁵⁸⁾고 기록하고 있어, 白湖의 인생에 大谷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白湖의 學風과 處世는 그의 外孫子인 眉叟 許穆(1595-1682)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白湖 尹鑄(1617-1680)도 大谷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白湖는 丁卯胡亂(1627)과 丙子胡亂(1636)에 각각 外家人 報恩으로 피난⁵⁹⁾⁶⁰⁾하였으며, 그곳에서 그의 外祖父이자

53) 金然, 『海東文獻總錄』, 影印本, 서울: 新韓書林, 1969. p.273. ‘大谷集’條.
 “… 建叔爲人 端重溫雅 平淡簡易 隱於俗離山下大谷 杜門求道造詣精深 平生以山水自娛與世無競 ….”

54) 申炳周, “大谷 成運의 學風과 處世,” 『南冥學』 第7卷(1999), 339-364.

55) 林悌, 『白湖集』, 卷1. 五言長篇. ‘大谷先生挽’條.
 “一丘復一壑 山高而水流 人與白雲住 人去白雲留 白雲有時天際去 日暮獨歸巖下宿 斯人一去不再來 蕙帳塵生山月白.”

56) 林悌, 『白湖集』, 卷4. 文. ‘祭大谷先生文’條.
 “夫索隱行怪 聖人不爲 自衒自媒 君子恥之 自古豪傑之士 往往流入於二者之弊而不知也 其惟夷清惠和 玉潤金精 而鴻冥九霄 鳳舉千仞者 數百年來 僅有見於先生 故先生節高乎巢許而世莫知 非獨世不知先生 而先生於世亦不求聞知 非徒不求聞知 而唯恐其有聞有知 一丘一壑 左琴右書 簞瓢冷落 獨寐寤處者 幾五十年於斯矣 若與夫世上碌碌盜名字者同日而語 則是何異梅秀於衆芳 鶴出於鷄群也耶 尼父稱遜世而無悶 不見知而不悔者 惟先生庶幾於斯言 第念末路悠悠 是非訛誤 薰蕕之不分 朱紫之相亂久矣 ….”

57) 林悌, 『白湖集』, 卷1. 五言近體. ‘到住雲庵(庵在俗離山公年弱冠受業於大谷先生入此山讀書數歲而還)’條.
 “步步却清曠 自驚塵世蹤 巖奇或如虎 松老盡成龍 雪路馬頻蹶 幽林人未逢 行尋翠微寺.”

58) 林悌, 『白湖集』, ‘跋文[林悌]’條.
 “… 白湖早歲有志于學 負笈從師 尋大谷成先生于鍾山之下受中庸 仍入俗離山 探究義理 累經寒暑 深得先生旨趣 而先生亦不待之以外 有答白湖詩曰 妙年耽學着功深 七字題詩擲地金 別後思君如見面 良宵皓月到天心 觀此一絕 白湖之取重於先生 概可知矣 自先生歿後 世絕知己 無意宦路 或自放於山野 或沈冥於酒肆 吟詠月露 陶寫性情者 特其餘事 而爲世所重 噫 天之生是公 ….”

59) 尹鑄, 『白湖先生文集』, 附錄. 年譜. ‘熹宗哲皇帝天啓七年丁卯’條.
 “七年丁卯(先生十一歲) 正月 奉夫人避兵于三山外宅(時建虜大入 連陷郡縣 至平山 先生奉夫人避兵三山 …).”

60) 尹鑄, 『白湖先生文集』, 附錄. 年譜. ‘毅宗皇帝崇禎九年丙子’條.
 “九年丙子(先生二十歲) 草萬言疏 不果上 … 奉夫人向三山(爲避兵計也 是冬 虜騎圍南漢).”

大谷의 嗣孫인 澗西齋 金德民으로부터 大谷의 學風을 接할 수 있었다. 白湖는 報恩의 外家에서 澗西齋로부터 『皇極經世書』를 배우며 독서를 하다가도 의문이 생기면 大谷의 讀書室인 ‘竹軒’으로 들어가 糶로 參究하기도⁶¹⁾ 하였으며, <書大谷先生言行錄後>에서는 栗谷이 大谷을 칭송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살피건대 선생이야말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돈독히 하며 배우기를 좋아하는 ‘篤信好學’과 죽음에 임하더라도 道를 참되게 하는 ‘守死善道’의 體用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였던 진정한 隱現者가 아니었을까 한다.”⁶²⁾고 하면서 大谷에 대한 敬畏를 述懷하고 있다.

이밖에도 大谷의 當代와 後代에 그의 學風과 處世 및 著述의 影響을 받은 人士들은 無數하며, 그 주요 人士들을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大谷 著述의 後響과 관련된 主要 人士

番號	文型	題名	篇數	撰者	生沒年	根據文獻	備考
01	詩史	<成大谷詩史>	1	宋希奎	1494-1588	『椰溪先生文集』, 卷3, 附錄.	
02	詩	<寄健叔>	2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五言絕句.	
03	詩	<寄大谷>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五言四韻.	
04	詩	<和健叔>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七言絕句.	
05	詩	<無名花(寄健叔)>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七言絕句.	
06	詩	<兼贈太溫健叔>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七言絕句.	
07	詩	<奉和健叔因問 … (大谷字名運)>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七言絕句.	
08	詩	<贈別大谷(丙寅同被召命時作)>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七言四韻.	
09	詩	<寄大谷>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1, 七言四韻.	
10	書	<與成大谷書>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2, 書.	
11	書	<與成大谷書>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2, 書.	
12	書	<與成大谷書>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2, 書.	
13	書	<與成大谷書>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2, 書.	

61) 尹鑄, 『白湖先生文集』, 附錄. 年譜. ‘毅宗皇帝崇禎元年戊辰’條.

“毅宗皇帝崇禎元年戊辰(先生十二歲)在三山(先生嘗以皇極經世書請學于僉樞公公曰世無解是書者又非小子之所可學自是戶庭之間不見先生來往之跡僉樞公怪問之侍婢言在竹軒竹軒者成大谷運讀書之室在澗邊幽邃處也僉樞公潛往視之先生方危坐對經世書俯而讀仰而思不知門外之有登音也僉樞公大異之歸語先生大夫夫人曰汝雖早寡汝家福祿不可量也嘖嘖稱奇後旬餘光生復以是書質之僉樞公公不能難.”

62) 尹鑄, 『白湖先生文集』, 卷21. 跋. ‘書大谷先生言行錄後’條.

“右言行錄大谷成先生平日言行板谷成公聞德所集錄者也先生懷寶遜世不求人知隱於湖西離山之下垂五十年以沒沒而無門人子弟布揚之以故言行不大著幸是錄出於板谷成成公即先生之猶子而栗谷李文成所稱逸民有才德者也其言固無阿所好其所記孝友之行獨立之操辭受之節進退之義學問之功進修之方俱可爲來世之法及誌墓文字所以狀德貌行者言而有文質而不華又足以傳諸學者而示久遠自我觀之若先生者殆夫子所謂篤信好學守死善道以道爲隱見者非耶先生學聖人之道懷橫厄之憂而見幾退舉殉身以往卒與鳳歌荷蕢者伍而伏死於大山嶽巖之中既沒而有遺文數卷行世見其發於吟嘯歌詠之餘者皆條然高遠有出塵之趣其醉鄉記虛文贊寓意悲惋足爲世道流涕且聞先生遺戒勿立墓表後人用不敢爲顯刻揄揚但以片石識其塚處牛溪成文簡書其陰亦唯曰公居林下四十年其所以杜門求志者必有其學謙退確守者必有其見玩而忘飢不知老之將至者必有其樂人但見考槃澗谷琴書自娛而若其所存則鮮能窺測而已嗚乎此又可以見先生避世潛名之志而其高風卓節足以廉頑立懦湖鄉士子謀欲刻先生言行遂書此而諗之.”

番號	文型	題名	篇數	撰者	生沒年	根據文獻	備考
14	書	〈與成大谷書〉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2. 書.	
15	書	〈答人書贈(答書)〉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4. 補遺.	
16	吊狀	〈護喪所吊狀〉	1	曹植	1501-1572	『南冥先生集』, 卷4. 補遺.	
17	詩	〈大谷與仁仲夜話〉	1	金麟厚	1510-1560	『河西先生全集』, 卷9. 五言律詩.	
18	詩	〈贈大谷處士〉	1	盧守愼	1515-1590	『蘇齋先生文集』, 卷5. 詩.	
19	詩	〈復次大谷次韻〉	2	盧守愼	1515-1590	『蘇齋先生文集』, 卷5. 詩.	
20	詩	〈訪大谷飲〉	1	盧守愼	1515-1590	『蘇齋先生文集』, 卷5. 詩.	
21	詩	〈次成處士健叔韻〉	1	黃俊良	1517-1563	『錦溪先生文集』, 內集. 卷2. 詩.	
22	詩	〈次健叔家成子敬韻〉	1	黃俊良	1517-1563	『錦溪先生文集』, 內集. 卷2. 詩.	
23	詩	〈次贈成健叔〉	1	黃俊良	1517-1563	『錦溪先生文集』, 內集. 卷2. 詩.	
24	詩	〈次成健叔尋梅韻〉	1	黃俊良	1517-1563	『錦溪先生文集』, 內集. 卷2. 詩.	
25	詩	〈寄鍾谷成處士(運)健叔〉	1	宋寅	1517-1584	『願庵遺稿』, 卷1. 詩.	
26	挽	〈大谷挽詞〉	1	宋寅	1517-1584	『願庵遺稿』, 卷1. 詩.	
27	詩	〈次成大谷先生 … 冤臣見原有吟〉	1	權好文	1532-1587	『松巖先生文集』, 卷3. 詩.	
28	詩	〈次大成先進遺韻〉	1	權好文	1532-1587	『松巖先生續集』, 詩.	
29	詩	〈次蘇齋呈大谷韻〉	1	李義健	1533-1621	『桐隱先生稿』, 卷3. 詩.	
30	祭文	〈祭大谷先生文〉	1	成渾	1535-1598	『牛溪先生集』, 卷6. 雜著.	
31	祭文	〈成大谷祠字祭文〉	1	李珥	1536-1584	『栗谷先生全書』, 卷14. 祭文.	
32	詩	〈聞金尼山可幾死亂鋒有悼〉	1	李海壽	1536-1599	『藥圃先生遺藁』, 卷2. 丙申雜稿.	
33	詩	〈和成大谷精舍韻〉	1	河沆	1538-1590	『覺齋先生文集』, 卷上. 詩. 五言律詩.	
34	詩	〈過成大谷舊居有感〉	1	河沆	1538-1590	『覺齋先生文集』, 卷上. 詩. 五言律詩.	
35	挽	〈挽成大谷〉	2	河沆	1538-1590	『覺齋先生文集』, 卷上. 詩. 五言律詩.	
36	祭文	〈祭成大谷(運)文〉	1	鄭述	1543-1620	『寒岡先生文集』, 卷11. 祭文.	
37	詩	〈謝三山書院諸君子携酒遠訪〉	1	趙憲	1544-1592	『重峯先生文集』, 卷1. 詩.	
38	詩	〈辨師詆論學政疏〉	1	趙憲	1544-1592	『重峯先生文集』, 卷5. 疏.	
39	祭文	〈三山書院祭大谷成公(運)文〉	1	趙憲	1544-1592	『重峯先生文集』, 卷13. 祝文·祭文.	
40	挽	〈大谷先生挽〉	1	林悌	1549-1587	『白湖集』, 卷1. 五言長篇.	
41	祭文	〈祭大谷先生文〉	1	林悌	1549-1587	『白湖集』, 卷4. 文.	
42	詩	〈次成大谷韻〉	5	權宇	1552-1590	『松巢先生文集』, 卷1. 詩.	
43	年譜	〈晚翠先生年譜(吳挺緯)〉	1	吳億齡	1552-1618	『晚翠集』, 年譜.	
44	墓碣銘	〈烈婦生員金德民妻申氏墓碣銘〉	1	李好閔	1553-1634	『五峯先生集』, 卷15. 碑銘·墓誌.	
45	祭文	〈祭大谷成先生文〉	1	張顯光	1554-1637	『旅軒先生文集』, 卷11. 祭文.	
46	詩	〈祭大谷成先生文(再祭文)〉	1	張顯光	1554-1637	『旅軒先生文集』, 卷11. 祭文.	
47	詩	〈復用前韻疊至八章呈寄〉	6	趙翊	1556-1613	『可畦先生文集』, 卷1. 詩. 避寇錄.	
48	詩	〈訪族祖父大谷先生 … 參軍德民〉	1	成文潛	1559-1623	『滄浪先生詩集』, 卷2. 詩.	
49	詩	〈南公濟(撥)作宰報恩 … 詩以寄之〉	1	任鎮	1560-1611	『鳴臯集』, 卷3. 五言律詩.	
50	詩	〈次成大谷畫坐偶吟韻〉	1	鄭曄	1563-1625	『守夢先生集』, 卷1. 七言絕句.	
51	詩	〈又次大谷示南冥韻〉	1	鄭曄	1563-1625	『守夢先生集』, 卷1. 七言絕句.	
52	詩	〈山居〉	1	鄭經世	1563-1633	『愚伏先生文集』, 卷1. 詩.	
53	詩	〈悶睡起偶次大谷 … 索瓊之意也〉	2	玄德升	1564-1627	『希菴先生遺稿』, 卷2. 律詩七言.	
54	詩	〈再疊成大谷(運)韻〉	1	玄德升	1564-1627	『希菴先生遺稿』, 卷3. 律詩七言.	
55	漫文	〈晴窓軟談下〉	2	申欽	1566-1628	『象村先生文集』, 卷52. 漫稿下.	

番號	文型	題名	篇數	撰者	生沒年	根據文獻	備考
56	詩	〈謹次大谷成先生 … 中一嘯云爾〉	1	李 屹	1568-1630	『雪汀集』. 卷3. 詩. 七言律詩.	
57	漫文	〈大谷作南冥行錄〉	1	鄭弘溟	1582-1650	『畸庵集續錄』. 卷12. 漫述.	
58	漫文	〈大谷作南冥行錄〉	1	鄭弘溟	1582-1650	『畸翁漫筆』.	
59	挽	〈大谷成健叔(運)挽〉	1	金光炫	1584-1647	『水北遺稿』. 卷3. 詩.	
60	詩	〈東賢十六詠〉	1	趙任道	1585-1664	『澗松集』. 卷2. 詩. 七言絕句.	
61	序	〈送友人具鳳瑞南歸俗離山序〉	1	崔有海	1588-1641	『嘿守堂先生文集』. 卷17. 序.	
62	書	〈答李子雨〉	1	宋時烈	1607-1689	『宋子大全』. 卷99. 書.	
63	祝文	〈報恩象賢書院告四先生文〉	1	宋時烈	1607-1689	『宋子大全』. 卷151. 祝文.	
64	書	〈答羅顯道(良佐)〉	1	尹宣舉	1610-1669	『魯西先生遺稿』. 卷10. 書.	
65	詩	〈用前韻寄尤翁鍾山寺居〉	1	尹宣舉	1610-1669	『魯西先生遺稿別集』. 卷14. 詩.	
66	墓誌銘	〈外祖僉知中樞府事金公墓誌銘〉	1	尹 鏞	1617-1680	『白湖先生文集』. 卷18. 墓誌銘.	
67	跋	〈書大谷先生言行錄後〉	1	尹 鏞	1617-1680	『白湖先生文集』. 卷21. 跋.	
68	書	〈與朴季肯(世堂)〉	1	尹 拯	1629-1714	『明齋遺稿』. 卷10. 書.	
69	詩話	〈詩話〉	1	金萬重	1637-1692	『西浦先生集』. 卷7. 西浦日錄.	
70	詩	〈有懷大谷先生〉	2	崔錫恒	1654-1724	『損窩先生遺稿』. 卷3. 詩.	
71	雜著	〈東儒師友錄記疑〉	1	李顯益	1678-1717	『正菴集』. 卷16. 雜著.	
72	記	〈勿溪書院記〉	1	趙文命	1680-1732	『鶴巖集』. 冊5. 記.	
73	詩	〈用成大谷韻咏卽事〉	1	蔡之洪	1683-1741	『鳳巖集』. 卷1. 詩.	
74	時調	〈堯舜갓든님군 … 줄을모로리라〉	1	金天澤	1687-1758	『靑丘永言』. 成運.	
75	書	〈與李景協書〉	1	安鼎福	1712-1792	『順菴先生文集』. 卷4. 書.	
76	詩	〈濯谷訪金奉事 … 呈成大谷韻奉寄〉	1	朴胤源	1734-1799	『近齋集』. 卷3. 詩.	
77	詩	〈濯谷謹次大谷集中幽居韻示鸞孫〉	1	金相進	1736-1811	『濯溪集』. 卷10. 詩.	
78	詩	〈登金積溪堂謹次大谷南冥韻〉	1	金相進	1736-1811	『濯溪集』. 卷10. 詩.	
79	詩	〈八月十七日 … 拜大谷先生墓口占〉	1	金相進	1736-1811	『濯溪集』. 卷10. 詩.	
80	祝文	〈報恩金華祠奉安 … 三賢文〉	1	宋穉圭	1759-1838	『剛齋先生集』. 卷7. 祝文.	
81	傳記	〈成運〉	1	成海應	1760-1839	『研經齋全集』. 卷53. 逸民傳.	
82	說	〈地稔轉運辨證說〉	1	李圭景	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地理總說.	

이상을 통하여 볼 때 倬溪 宋希奎, 南冥 曹植, 河西 金麟厚, 蘇齋 盧守愼, 錦溪 黃俊良, 頤庵 宋寅, 松巖 權好文, 峒隱 李義健, 牛溪 成渾, 栗谷 李珥, 藥圃 李海壽, 覺齋 河沆, 寒岡 鄭述, 重峯 趙憲, 白湖 林悌, 松巢 權宇, 晚翠 吳億齡, 五峯 李好閔, 旅軒 張顯光, 可畦 趙翊, 滄浪 成文濬, 鳴阜 任鍾, 守夢 鄭曄, 愚伏 鄭經世, 希菴 玄德升, 象村 申欽, 雪汀 李屹 등 27인은 大谷의 당대에 이미 그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이며, 畸庵 鄭弘溟, 水北 金光炫, 澗松 趙任道, 嘿守堂 崔有海, 尤庵 宋時烈, 魯西 尹宣舉, 白湖 尹鏞, 西浦 金萬重, 損窩 崔錫恒, 正菴 李顯益, 鶴巖 趙文命, 鳳巖 蔡之洪, 金天澤, 順菴 安鼎福, 近齋 朴胤源, 濯溪 金相進, 剛齋 宋穉圭, 研經齋 成海應, 五洲 李圭景 등 19인은 大谷의 後代에 그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이다.

그중에서도 濯溪 金相進(1736-1811)은 大谷이 은거한 報恩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이곳 鄉村에서 은거하다卒去한 조선 말기의 士林 知識人 중의 한 사람이다. 濯溪가 報恩의 濯溪洞을 중심으로 ‘義田宅’을 마련하여 당시 어렵기 그지없던 宗族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治家에 집중한 것이라든가,

그의 曾祖父인 金載圭(1692-1754)의 뜻을 계승하여 千餘卷의 서적을 수집하고 ‘墨莊’이라는 藏書閣을 경영하여 지방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⁶³⁾ 등은 아마도 大谷의 영향 아래 그의 眞面目을 그대로 계승한 때문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처럼 忠淸道 報恩의 鍾谷과 俗離山 자락을 기반으로 하는 大谷의 學問과 學風은 당대의 학자들에게는 물론 林白湖와 許眉叟 및 尹白湖 등 近畿의 南人 學者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後代의 同鄉의 濯溪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學風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5. 結 論

이상에서 大谷 成運의 學問과 思想을 중심으로 그의 著述과 逸文 및 後響 등에 관하여 考察한 바,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大谷 成運(1497-1579)은 戊午·甲子·己卯·乙巳 등의 士禍가 빈번한 조선 중기의 암흑시대에 일생의 대부분을 妻鄉인 報恩의 鍾谷과 속리산 자락에 隱居하며 湖西處士로서의 입지를 견지한 인물로, 正道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出仕하여 顯達을 구하기보다는 徐花潭·曹南冥·成東洲·李士亭 등의 士林學者들과 교분을 맺으면서 山林의 處士로서 自娛·自足한 인물이었다.

(2) 大谷의 저술로는 『大谷先生集』만이 전래되고 있을 뿐 그의 저술로 알려진 『易學圖說』·『南冥行錄』 등은 전래되지 않고 있다. 그의 시문집인 『大谷先生集』은 선조 29년(1596) 무렵에 門人·弟子이며 妻姪·姪壻인 동시에 後嗣子인 一丘堂 金可幾에 의하여 편집되어 선조 36년(1603)에 一丘堂의 아들이며 그의 後嗣孫인 澗西齋 金德民이 西垞 柳根의 도움을 얻어 목판으로 刊行한 것이다.

(3) 『大谷先生集』은 권두의 <序文>과 本集 상·중·하 및 부록의 <賜祭文> 등 3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卷次別로는 卷上에 他人의 附詩 3題를 포함한 204題 213首의 詩篇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詩篇은 遊覽·名勝·人物·日常 등에 관련된 것으로 詩體의 구분이 없이 수록되어 있다. 卷中에는 2題 2首의 詩篇과 <虛父贊>·<大旱賦>·<蛇說>·<答友>·<醉鄉記>·<請旌閭孝行疏>·<請文官邑宰疏>·<聽松先生遺事>·<辭職上疏>·<謝賜粟帛書> 등 10편의 雜著가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柳氏墓碣>·<南冥先生墓碣>·<希庵墓碣>·<朴承旨墓碣> 등 4편의 碣銘과 <祭南冥先生文>·<祭朴節度使文>·<三山書院祭沖庵文> 등 3편의 祭文이 각각 수

63) 金相進, 『濯溪集』.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純祖 28(1828)]. 卷8. 記. ‘墨莊記’條.

“昔我曾王考少時失學 晚切悔恨 見有鬻書者 必傾夕糧脫冬袴以易之 蓄書數百卷以遺子孫 至曾孫相進 傳世既久 頗散失 存者亦剝敝不可讀 相進大懼先旨之荒墜 於是節食縮衣以聚之 積四五十年 遂復其舊 而較其卷帙所增 殆三之二焉 歲己未夏 閣以藏之 扁曰墨莊 蓋取朱夫子劉氏墨莊記之說也 … 閣既成 書此數行 退立拱手 以俟夫百世下曾王考子孫之來登是閣者而告焉 曾王考棄子孫八十三年六月甲寅 不肖曾孫相進謹書.”

록되어 있다. 卷末의 附錄에는 선조 12년(1579) 6월에 宣祖가 내린 <賜祭文> 1편이 수록되어 있다.

(4) 『大谷先生集』에 수록된 大谷의 詩文들은 그의 詩文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大谷의 평소의 詩文들은 그의 생전에 被禍의 공포로부터 이미 많은 편수가 遺漏되고 그나마 남은 시문들조차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또다시 散逸되어 一丘堂에 의하여 『大谷先生集』이 편집될 당시에는 이미 遺漏·散逸되거나 改作된 詩文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大谷의 自作 또는 他人 著作으로서 『大谷先生集』에 수록되지 않은 逸書·逸文 또는 改作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著述類로는 大谷의 『易學圖說』·『南冥行錄』과 板谷 成允諧의 『大谷先生言行錄』 등이 있으며, 詩篇類로는 自作의 時調 1수와 詩題 不明의 詩 1수가 있고 他人에 의하여 改作·引用된 詩로는 <書座壁>·<村居書事>·<寄樾仲> 등이 있다. 書簡類로는 南冥 曹植의 <答人書贈>의 附錄으로 수록된 <附答書> 1편이 있으며, 祭文類로는 大谷이 南冥의 護喪所에 보낸 <護喪所吊狀>을 비롯하여 牛溪 成渾의 <祭大谷先生文>과 栗谷 李珥의 <成大谷祠宇祭文> 그리고 寒岡 鄭述의 <祭成大谷(運)文>과 白湖 林悌의 <祭大谷先生文> 등이 있다. 挽類로는 頤庵 宋寅의 <大谷挽詞>와 覺齋 河沆의 <挽成大谷> 그리고 白湖 林悌의 <大谷先生挽>과 水北 金光炫의 <大谷成健叔(運)挽> 등이 있다. 이상의 逸書·逸文 또는 改作들은 大谷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다.

(6) 大谷의 學風과 處世는 當代와 後代의 많은 인사에게 영향을 미쳐, 當代에는 倂溪 宋希奎, 南冥 曹植, 河西 金麟厚, 穌齋 盧守愼, 錦溪 黃俊良 등 27인의 인사들이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後代에는 尤庵 宋時烈, 魯西 尹宣舉, 白湖 尹鑄, 西浦 金萬重 등 19인의 인사들이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도 白湖 林悌와 眉叟 許穆 및 白湖 尹鑄 등은 학문적으로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들이며, 특히 濯溪 金相進은 大谷이 은거한 報恩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이곳 鄉村에서 隱居하다 卒去한 조선 말기의 士林 知識人 중의 한 사람으로 大谷의 眞面目을 그대로 繼承한 인물로 파악된다.

이처럼 忠淸道 報恩의 鍾谷과 俗離山 자락을 기반으로 한 大谷의 學問과 學風은 當代의 학자들에게는 물론 林白湖와 許眉叟 및 尹白湖 등 近畿의 南人 學者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後代의 同鄉의 濯溪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學問과 學風은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原典資料]

權鼈. 『海東雜錄』.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發不明], [筆寫年不明].

金光炫. 『水北遺稿』. 木板本. [嶺營]: [發行處不明], [純祖 5(1805)].

- 金相進. 『濯溪集』.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純祖 28(1828)].
- 金春澤. 『青丘永言』. 新鉛活字本. [京城]: 京城帝國大學, 昭和 5(1930).
- 金佺. 『海東文獻總錄』. 影印本. 서울: 新韓書林, 1969.
- 柳根. 『西垞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7.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影印本. 서울: 明文堂, 1982.
- 李珥. 『栗谷先生全書』. 影印本.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 朴英. 『松堂先生文集』. 木活字本. [發行地不明]: [朴鍾基], [高宗 1(1864)].
-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宣祖 36(1603)].
- 成渾. 『牛溪先生集』. 木板本. [昌寧]: [勿溪書院], [純祖 9(1809)].
- 宋時烈. 『宋子大全』. 木板本. [箕營]: [發行處不明], [正祖 11(1787)].
- 宋寅. 『頤庵遺稿』. 影印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1972].
- 宋希奎. 『椰溪先生文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憲宗 13(1847)].
- 申欽. 『象村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0.
- 安鼎福. 『順庵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4.
- 尹拯. 『明齋遺稿』.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4.
- 尹鑄. 『白湖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7.
- 李肯翊. 『燃藜室記述』. 鉛活字本. 京城: 朝鮮光文會, 1912.
- 李廷馨. 『知退堂集』.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1.
- 林悌. 『白湖集』. 影印本. 서울: 昨晨社, 1984.
- 鄭述. 『寒岡先生文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 鄭弘溟. 『畸翁漫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 鄭弘溟. 『畸庵集續錄』.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 曹植. 『南冥先生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海君 1(1609)].
- 趙憲. 『重峯先生文集』. 鉛活字本. 延白: 鳳陽祠, 1934.
- 河沆. 『覺齋先生文集』. 石版本. 京城: [發行處不明], 1940.

[單行本·論文]

- 申炳周. “大谷 成運의 學風과 處世.” 『南冥學』 第7卷(1999). 339-364.
- 朴文烈. “大谷 <成運誌石>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69輯(2017. 3). 193-220.

[電子情報源]

- 國立中央圖書館 (<http://www.nl.go.kr/>) 檢索.
-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 檢索.